

윤활소식

—협회 92년도 총회개최—

협회는 지난 12월22일 만강홍에서 92년도 제4차 이사회 및 제2차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93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협회는 윤활유업계간(대·중·소, 전문업체·겸업체간) 공존공영기반구축, 건전유통체계육성, 폐윤활유회수처리업무정착을 사업계획의 기본방향으로 삼고 3억2천만원을 새해 예산으로 확정하였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공포—

정부는 지난 12월8일자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고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주요골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에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여야 할 책무를 부여하고 폐기물의 재활용촉진 및 원천적인 발생억제를 위하여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상의 예치금제도외에 부담금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금지원, 연구, 기술개발사업의 실시, 재활용제품의 구매촉진과 품질, 규격기준의 제정등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같은 날자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처리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중 개정법률」 「수질환경

보전법중개정법률」 「소음, 진동규제법중 개정법률」 「폐기물관리법중 개정법률」을 공포하였다.

—쌍용정유, 유압유캠페인 실시—

쌍용정유(주)는 10월5일부터 11월14일까지 2차에 걸쳐 압출, 사출 및 프레스 사용업체등 유압작동유 실수요업체 약 120개를 대상으로 유압유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기술판매부가 맡아 추진한 이번 캠페인은 유압유판매촉진을 위하고 기술서비스향상 및 판매활동전개를 목적으로 하였다.

—극동정유, 사보창간—

극동정유주식회사(대표이사 최동규)는 정유사중 네번째로 사보 「극동정유」를 창간하였다. 4/6배판 계간물인 「극동정유」는 창간사에 “88년 대산공장을 준공한후 그동안 각 사업장을 이어주고 극동가족간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매체가 없어 서로의 소식을 궁급해 하고 대화의 통로가 없는 것을 아쉬워하며 미흡한 마음을 가질때가 많았다”고 최동규 사장이 밝히고 사보가 극동가족을 연결시키는 거멀뚱이 되고 극동정유의 기업문화를 창출하는 촉매제가 되며 극동정유의 앞길을 향도하는 등불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석유품질검사소, 석유제품 품질관리세미나 개최—

한국 석유품질검사소(이사장 강증모)는 지난 12월4일 서울삼성동소재 KOEX 4층 대회의실에서 관계인 다수가 참석, 경청한 가운데 제9회 석유제품 품질관리세미나를 성대히 개최하였다.

강이사장의 인사에 이어 강용식 교수(중앙대학교)의 사회로 노가미(野上周二) 일본 윤활유중앙기술연구소장의 「일본에서의 윤활유 기본적 문제점에 대하여」를, 호남정유 문풍길상무의 「윤활유의 품질관리 및 방향」을, 조병용 협회부회장의 「윤활유유통체계의 현실과 개선방향」을 강용식교수의 「윤활유장래의 품질개선 대책」에 대하여 각각 주제발표가 있었다.

특히 이날의 질의응답 및 토론시간에는 참석자들의 많은 사람들이 윤활유업계의 문란한 유통체계와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나타내었다.

—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강연회 개최—

한국윤활학회(회장, 안명주)는 92년도 정기총회 및 학술강연회를 11월25일 서울대학교 문화관에서 많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마쳤다.

안명주 회장의 인사에 이어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장의 축사가 있었다.

이날의 학술강연회에는 학술강연 1인과 8편의 논문발표가 있었다.